

북한의 통치 담론에 따른 여성 인물의 리프레이밍 연구*

이 은 정
(숙명여대)

1. 서론

2012년 10월 24일자 AP 뉴스에 ‘Reading Gone With the Wind in Pyongyang’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렛 미첼(Margaret Mitchell)의 소설 *Gone With the Wind*가 평양 시민 사이에 열풍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북한에서 가장 미국적이라 할 수 있는 소설이 유입된 점과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다룬 기사였다. 미국에서는 텍스트에 표현된 저자의 인종차별적·성차별적 시각으로 인해 부정적인 비판이 고조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주인공 스칼렛을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강인한 여성으로 평가하는 시민 인터뷰도 실렸다. 이는 번역텍스트 서문에서 스칼렛이 봉건사회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려 한 여성으로 소개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왜 이데올로

기적으로 반목하는 미국의 소설이 북한 사회에서 널리 읽혔으며, 스칼렛은 사회주의 여성상으로 리프레이밍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븐 조하르(Even-Zohar)는 번역이란 고립된 활동이 아닌 사회의 여러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 기제(determiner)라고 정의한다(1972: 193). 르페브르(Lefevre)는 번역할 텍스트를 선택하고, 생산 방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서 문화권력을 행사하는 후원자 즉 국가기관이나 출판사, 교육기관 등을 지적한 바 있다(1992: 17). 전체주의 국가는 동일한 후원자가 이 세 요소의 권력을 모두 쥐고 일반대중이 소비하는 문학의 범주(고급문학/대중문학)까지 통제할 수 있다(Hermans 1999: 126). 국가 기관이 출판과 교육기관까지 통제하는 북한도 이에 해당하는 바, 시장의 영향이나 기획자의 판단, 여론의 수렴과정이 배제된 채 당의 목소리가 일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흐른다(전영선 2000: 97).

정권 수립 이후 1인 지배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의 통치 담론은 권력 유지를 위해 시대에 따라 결을 달리하는데, 젠더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기반의 양성 평등과 유교주의 기반의 남성 중심의 시각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충돌은 문학번역에서도 나타나 여성 인물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재해석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에서 번역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중심으로 원천텍스트의 여성 인물이 통치담론을 통해 재해석·재평가되는 과정을 번역의 리프레이밍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를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대조군으로서 남한의 번역텍스트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덧붙여 90년대 번역텍스트 서문과 2000년대 문학잡지에서 소개하는 동일한 여성 인물의 상이한 평가도 함께 제시한다. 이는 원천텍스트와 작가에 대한 충실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문학번역도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체계와 맞물린 체계 중심 행위로서 번역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역추적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실증하는 데 연구 목적을 갖는다.

*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 문학번역과 수용의 프레임 연구: *Gone With the Wind*를 중심으로』 중 젠더 측면을 수정·보완한 것임.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번역에서의 리프레이밍

프레이밍 분석은 1974년 고프만(Goffman)의 연구로 개념화되었다. 프레임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상황에 의미를 만들고 직간접적 경험을 조직하여 향후 태도 및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해석적 도식이다. 즉 개별인간 또는 유사한 이해를 공유하는 어떤 집단이 사회적 사건이나 의제를 이해하고, 자신과 집단의 의견이나 행동을 결정하면서 그 결과까지 고려하는 인식의 틀을 말한다(Goffman 1974: 21; 박영자 2017 재인용). 고프만이 어떤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프레임에 초점을 맞췄다면, 베이커(Baker)는 사건의 프레임에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힘에 관심을 두었다(2006: 106). 번역자는 번역과정에서 내러티브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텍스트 안에서 재현할 지 아니면 번역을 거부할 지 윤리적 선택에 직면한다(103). 번역과정에서 번역자와 출판업자, 편집자 등이 원천텍스트에 내재된 내러티브를 강조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베이커는 리프레이밍이라 명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프레임 중의성(frame ambiguity), 시간적·공간적 프레이밍(temporal and spatial framing), 텍스트 요소의 선택적 전용(selective appropriation of text material), 이름붙이기(branding by labelling), 구성요소의 재배치(repositioning of participants)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프레임 중의성은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천텍스트의 언어를 번역할 때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러티브의 성격이 달라진다. 시간적·공간적 프레이밍은 원천텍스트의 내러티브를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하는가와 관련한다. 텍스트 요소의 선택적 전용은 원천텍스트에 내재된 내러티브의 특정 양상을 자기검열을 통해 생략하거나 첨가하는 것이다. 아동문학번역에서 성적·폭력적 표현을 삭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름붙이기는 내러티브에 대한 특정 반응을 유도하거나 제약하려는 의도로 핵심 요소를 통해 해석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구성요소의 재배치는 화자와 청자와 관련하여 시간·장소·지시어·방언·대명사와 같은 언어적 요소를 통해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배치는 서문을 통하거나 텍스트 내 표현 전환을 통해 텍스트 내적 내러티브 뿐 아니라 외적으로 더 확

대된 내러티브를 리프레이밍 할 수 있다.¹⁾

번역의 리프레이밍 현상은 번역에서 일어나는 선택이 단순히 지엽적이고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내러티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Baker 2007: 156). 일례로 외교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 영역본에서 이들 노동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강제 노동의 희생자)”로 번역하여 강제징용이 강압적 요구에 따른 수동적 행위라는 내러티브를 구성한 바 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을 ‘한반도출신 노동자’라고 명명하여 권력 관계에 의한 강압적 행위라는 사실을 지우고 자발적 노동 행위라는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²⁾ 동일한 사건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리프레이밍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2.2. 선행연구

국내 번역연구에서 내러티브의 리프레이밍 현상은 다양한 관점과 텍스트 유형에서 진행되어 왔다. 번역이 여러 사회문화적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번역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를 분류해 볼 수 있겠다. 김순미(2013)와 성승은과 이혜승(2019)은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의 개입에 의해 뉴스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 되는 현상을 분석했으며, 강경이(2018)는 우리나라의 학습만화가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지배권력에 의해 선택적 전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출판사의 개입에 의한 연구도 진행된 바, Kim(2019)와 이혜승(2019)이 출판시장의 이해논리 관점에서 텍스트 리프레이밍 현상을 다뤘다면, 김예진(2019)은 1950년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권력지형에서 출판사의 번역 리프레이밍 현상을 다루었다. 텍스트 차원에서는 이지영(2016)이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중국소설이 자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에서 상이하게 수용되는 결텍스트 양상을 분석하였다.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는 다층적으로 중첩되어 있어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리프레이밍 현상을 분석하기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북한의 경우 국가기관

1) 리프레이밍 특성과 관련한 분류는 Baker(2006)의 107-133 참조.

2) KBS(2018.11.15.) 「외교부, 정부 입장문 ‘강제징용’ → ‘Forced Labor’ 번역…불법성 강조」.

이 번역의 출판에서 배포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어서, 르페브르가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요소로 지적한 이데올로기·출판시장·시학·언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작동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작동기제는 통치담론이 내러티브의 리프레이밍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으로 역추적 할 수 있게 한다.

덧붙여 본 연구가 여성인물의 리프레이밍 현상을 다루고 있어 젠더와 관련된 선행 연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번역 연구에서 젠더는 그 방향성에 있어 사회에 대한 저항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결로 나뉜다. 전자는 페미니즘 시각에서 타자 혹은 하위주체로서 번역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저항적 글쓰기 혹은 번역의 실천적 행위로서 젠더번역을 다룬다면(태혜숙 2013; 마승혜 2015; 이상빈, 이선우 2018), 후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번역자의 아비투스나 젠더편향성을 연구하거나(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 수용자의 인식 면에서 접근한 젠더편향성(김세현 2018)을 다룬다. 본 논문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재해석되고 리프레이밍 되는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저항이 아닌 수용의 관점에서의 번역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기존에 다룬 적이 없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젠더편향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고자 한다.

3. 북한의 문학번역 체계

3.1. 북한의 문학번역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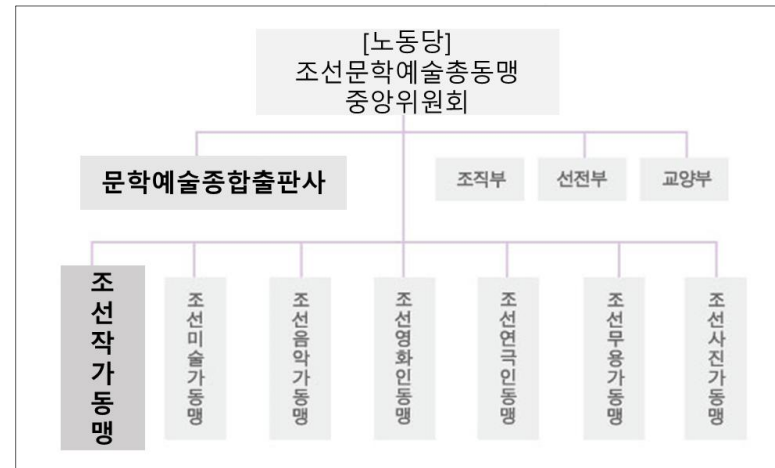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출판번역이 대개 출판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데 반해, 북한은 텍스트 선정부터 생산, 배포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전 과정을 통제한다. 이러한 수직적인 생산 체제는 북한의 출판물이 언론과 함께 ‘당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김용병 외 1999: 33).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강한 통제 규범이다. 언어 생활도 주체사상의 언어 정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언어 생활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며, 이것을 모든 인민이 의무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한다. 언어가 낡은 봉건 잔재 사상

이나 사대주의적 태도를 뿌리 뽑고 사상 무장을 하는 혁명 투쟁을 위한 중요한 목적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임철성 1997: 83)

그림 1에서 제시하듯 북한의 모든 작가와 예술인들은 노동당 직속기관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산하의 동맹에 가입해야 한다³⁾.

그림 1 북한의 문학예술총동맹 조직도



외국문학번역은 주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내 외국문학편집부에 소속된 번역원(김영희 2001: 15)과 조선작가동맹 산하 외국문학 번역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작가들이 담당한다(오오무라 2001: 364). 특히 국내 번역문학의 장이 열린 1950년대에는 북한에서도 외국문학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학번역사업을 활발히 벌인 걸로 보인다.⁴⁾

3) 그림 1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4) 박희영 (1959.2.12.) 「더 잘 번역하고 더 많이 소개하자 -외국 문학 분과 위원회 1958년도 총회 회의의 진행」, 『문학신문』 3면.

리봉섭 (1958.1.16.) 「외국 문학 번역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 문학 분과 확대 위원회 진행」, 『문학신문』 4면.

3.2. 집체적 번역방식 및 서문저자

북한의 기관 번역은 그 과정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 간접 자료를 토대로 추론하면, 개별 번역자가 존재하나 집단을 통해 상호 보완 및 견제 장치를 갖춰 집체번역 방식의 번역생산 체계를 갖춘 걸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에서 전문번역자가 일차로 번역을 마치면 상급 번역자가 번역물을 재검토하여 최적의 표현을 찾아내는 감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2004: 273-274). 2005년 10월 「남북공동 팔만대장경 번역을 위한 학술회의」에 참가한 북측 학자들은 개별적으로 번역을 진행하다가 의문점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집단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밝힌 바 있다.⁵⁾ 1950년대 신문기사에 번역문학과 관련하여 합평회나 독자회가 실린 것⁶⁾으로 보아 번역물도 집체창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유추된다.

북한의 번역문학에는 번역자와 별도로 서문저자가 존재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도 번역자는 박시환, 서문 저자는 ‘박사 리수립’으로 표기되어 있다. 북한에서 박사는 “2년간의 박사원 과정을 수료하고 해당분야에서 5-10년 연구업적을 쌓고 논문이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수여하는 칭호이다.”(전영선 2002: 36) 이 외에도 서문 저자는 교수, 준박사 등 외국문학을 전공한 학자가 담당하는 데, 출판 기관 뿐 아니라 교육기관도 텍스트 읽기에 개입하여 문학예술의 담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다.

4. 분석텍스트 소개

마스오 오오무라의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및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일본학술지 CiNii를 교차 점검한 결과 북한의 세계문학선집에서 출판된 미국문

학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포함해서 『윌트 휘트먼 시선』(1956), 『무쇠발꿈치』(1960), 『미국의 비극』(2001) 정도이다. 다만 제시한 목록은 선집 중심으로 단행본 목록은 검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문예잡지 『조선문학』에 「작가 델빌의 소설창작과 그 특징에 대하여」(2017. 제1호),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반동성을 비판한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무기여, 잘있거라>」(2017. 제12호) 등이 실린 것을 볼 때 북한에서 미국문학개관이나 단행본이 출판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북한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판되었으며, 1994년 지미 카터(Carter) 전 미국 대통령(1977-1981 재임)이 평양을 방문할 당시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이 주연했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DVD를 선물하면서 영화로도 수용되었다. 2011년도에 문학잡지 『조선문학』를 통해서도 텍스트를 소개하고 있어 미국문학 가운데 가장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된 텍스트라 하겠다.

원천텍스트 *Gone With the Wind*는 1936년에 출판되자마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중적 인기는 세계 대전과 경제대공황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설이 묘사하는 남부의 문화가 옛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대중문학의 성공 요소인 로맨스와 모험, 전쟁, 사회적 격변 등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Morton 1980: 53). 그러나 남북전쟁을 선악구조의 대립으로 배치하고, 전형적인 인물상과 직렬식 이야기 구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통속소설에 가깝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Watkins 1980: 89). 원천텍스트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인종차별적 묘사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테네시 주에 소재한 한 유명한 극장에서는 34년간 상연되던 고전영화목록에서 2017년부터 해당 영화를 배제⁷⁾하는 등 원천문학 자체에 대한 평가도 체계 안에서 흔들리는 양상을 보인다. 분석과 관련하여 예시의 순서는 아래 제시한 <표 1>과 같다.

5) 안수찬(2005)과 관련 블로그(<http://blog.daum.net/dph0108/7166144>) 참조.

6) 문학신문(1957.6.27.) 「번역문학합평회」, 3면.

문학신문(1958.10.30.) 「로동 계급을 그린 번역 작품들 - 번역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회에서」, 3면.

7) Tre'vell, Anderson (2017.9.5) 'Historical art or racist propaganda? How should Hollywood handle problematic classics like *Gone with the wind?*', LA Times.

〈표 1〉 분석텍스트 목록

텍스트	제목	저자/ 번역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 년도
ST	<i>Gone With the Wind</i>	Margaret Mitchell	N.Y.	Macmillan	1936
TT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박시환	평양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1999 ~2001
TT2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안정효	서울	열린책들	2010
TT3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장왕록	서울	동서출판사	2010

원천텍스트(ST) *Gone With the Wind*와 북한에서 번역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TT1), 비교군으로서 남한⁸⁾텍스트를 함께 제시하기 위해 전문번역자인 안정효의 번역(TT2)과 영문학자인 장왕록 번역(TT3)을 선택하였다. 분석 방법은 ST와 TT1을 대조하여 젠더 측면에서 원천텍스트의 의미가 추가, 삭제, 변형되는 경우를 찾았으며, 이를 다시 TT2와 TT3과 비교하여 굴절이 크게 나타나는 사례를 수집한 후에 여성성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목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한에서의 번역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동일 번역자나 동일 출판사의 재출판을 포함해 약 70여 종에 이른다. 북한에서 서문은 독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텍스트로서 이를 위한 대조군으로서 남한에서도 역사 서문이나 작품 해설이 수록된 번역텍스트가 필요했다. 그러나 대부분 번역자의 간단한 약력 소개에 그쳤으며, 안정효와 장왕록 번역자의 텍스트만 10여 페이지 분량의 역사 해설 또는 작품 해설을 실고 있었다. 안정효의 번역은 1983년 주우출판사, 장왕록의 번역은 1973년 동서문화사에서 초판된 이후 모두 현재까지 재번역·재출판되고 있어 동일하게 2010년에 출판된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8) 본고에서는 국내 번역과 북한 번역을 비교하면서 원천텍스트가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에서 번역된 목표텍스트를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표기는 해당 텍스트 뿐 아니라 자국 내 문학번역에 대한 논의들도 타자화 된 관점에서 재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5. 리프레이밍되는 스칼렛과 멜라니의 여성성

해방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고, 남녀평등법을 제정하여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수립한 이후 어버이로 상징되는 수령체제는 거대한 가부장 사회를 구성하였고,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공적인 영역에서는 동지로서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어머니·아내로서 여성 혼자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불균형을 낳았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이중적 역할은 *Gone With the Wind* 번역의 서문과 본문에서 상이하게 리프레이밍되는 여성성으로 드러난다. 서문에서는 강인한 여성상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스칼렛은 높이 평가하고 수동적인 멜라니는 비판하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여성의 희생과 모성성을 강조하며 가부장적 사고 중심의 젠더편향성을 보인다.

5.1. 번역 서문에서 제시하는 강인한 여성상

김종희는 북한 소설 작품들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내러티브 구조로서 ‘고난과 시련, 미성숙 → 의식의 각성, 모범 → 어머니당을 향한 충성’의 도정을 거쳐 도식적·극정적·화해적 결말을 지적한다(2012: 29). 이렇게 도식화된 구조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을 적용하면, 미국 남부 봉건 사회의 귀족 출신 여성이 남북전쟁으로 가문이 몰락한 후 가족의 생존을 위해 직접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에서 케를 같이 한다. 다만 스칼렛은 봉건주의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기보다 자본주의와 타협하여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극단한 부르조아적사상”(리수립 1999: 7)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혁명에 실패한 여성으로 프레이밍한다.

사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 남부의 봉건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원천텍스트 자체에 남성 중심적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봉건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귀속되어 보호받는 대상으로, “남성의 국가는 여성을 공동체와 민족의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로 인식한다.”(Enloe 1990: 54; 오미영 2000 개인용) 북한의 서문 저자 리수립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스칼렛이 남부사회 환경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해 스스로 생존해가는 과정을 높이 평가한다. “이른바 <<

숙녀》답게 처신하는 도덕과 생활양식”(1999: 4)을 교육받아온 스칼렛이 남북전쟁을 겪으며 “지난날의 낡고 봉건적인 것, 귀족적인 것과 결별하고 신홍하는 부르주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확립함으로써 생활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력사적전환기의 사회적성격”(1999: 3)으로 성장했다며 남성들과 경쟁하며 공적인 영역에 뛰어든 스칼렛을 부각시킨다.

한편 비교군으로 제시한 안정효와 장왕록의 번역에 수록된 역사 서문과 작품에서도 스칼렛에 대한 평가는 북한과 비슷하다. 안정효는 스칼렛이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면서 남부 귀부인의 교양과 자질을 코웃음친다(2010: 1645)”고 소개한다. 장왕록은 스칼렛이 19세기 여성이나 현대 여성상을 그린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이고 가히 동물적이라 할 만큼 생명력이 넘쳐흐르며 격렬하게 즐기고 격렬하게 슬퍼하며, 불행에 위축되지 않고 집요하고 성실하게 살아 나가는 끈기를 가지고 있다”(2010: 1310-1311)고 평가한다.

멜라니(Melanie)에 대한 평가는 남북한이 상이하다. 북한 서문 저자 리수립은 멜라니를 스칼렛의 “사랑의 적수”(1999: 8)이자 사회계급적 전형에서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시대의 성격”(1999: 14)으로 혹평한다. 반면에 안정효는 멜라니를 “남부의 우아한 이상형 여성이고 위대한 귀부인 상의 구현”(2010: 1644)이며 “여자란 어떠해야 한다고 미첼이 믿었던 모든 양상의 종합”(2010: 1655)으로 소개한다. 장왕록도 이와 비슷한 결로 멜라니를 “천사 같은 마음과 관용의 미덕을 지닌 여자”(2010: 10)로 평가한다. 이는 젠더 측면에서 자기희생과 모성애적 희생, 우아함을 여성의 이상으로 제시하는 번역자 안정효와 장왕록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소설 속 동일한 인물이 목표문화에 따라 다르게 리프레이밍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5.2. 공적·사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이중의 여성성

북한의 여성은 사회에서는 ‘혁신적 노동자’이자 가정에서는 ‘혁명적 어머니’라는 이중의 역할을 떠맡는다. 정권 초기에는 하위 주체였던 여성 및 노동자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편재시키기 위해 사회주의⁹⁾ 국가 성립을 표방했다면, 한

9)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수립 당시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를 두고 사유제

국전쟁 이후 남성중심의 위계화로 선회하면서 사회적 규범이었던 유교주의가 통치 담론에 흡수된 것이다.

국가 건설기에 권력자가 내세운 사회주의 평등 이념과 함께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봉건적인 가부장 질서는 서로 충돌하기 보다는 두터운 사회규범으로 작용하도록 구성해왔다. 따라서 지배 권력은 봉건사회를 비판하면서도 관습적인 가부장 질서를 청산하기보다는 권력 통치의 유효한 기제로 활용하여 국가와 인민들의 관계를 규범차원으로 연결시켰다. (권금성 2016: 37)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사적 영역에서 머물러 있던 가부장 질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공적 내러티브를 내세우면서 통치담론으로 확대되었다. 공적내러티브 내에서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평등한 관계와 ‘대가정’에 함의된 유교적 위계질서가 모순적으로 배치되듯이, 번역에서도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내러티브와 남성 중심의 유교주의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아래 제시한 [예시 1]은 원천텍스트에 표현된 남녀 불평등한 시각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내러티브를 보인다.

[예시 1]

[ST] ...a woman could handle business matters as well as or better than a man, a revolutionary thought to Scarlett who had been reared in the tradition that men were omniscient and women none too bright. (1936: 580)

[TT1] 남자는 모르는것이 없고 녀자는 그닥 똑똑치못하다는 전통적인 편견속에서 길러난 스칼레트에게 있어서 여자도 남자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훌륭히 장사일을 다룰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였다. (2000: 2-386)¹⁰⁾

도를 철폐하여 평등한 사회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사회개혁조치를 통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주체화되었다(Ashwin 2000: 1; 조영주, 2013 재인용).

[TT2] 여자가 남자 못지 않게, 아니면 보다 훌륭하게 사업을 꾸려 나가리라는 놀라운 생각은, 남자들이 전지전능하고 여자들은 별로 똑똑하지 못하다는 전통속에서 자란 스칼렛에게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2010: 중-972)

[TT3] 남자는 전지전능하고 여자는 다만 이름답기만 하면 된다는 전통 속에서 자란 스칼렛으로서,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훌륭하게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혁명적인 것이었다. (2010: 773)

[예시 1]에서 ST는 남성은 모든 걸 다 알고, 여성은 똑똑하지 못하다는 전제를 시대적 전통으로 서술하며 남성중심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안정효 번역 TT2와 장왕록 번역 TT3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전통”으로 옮긴 데 반해, 북한의 박시환 번역 TT1에서는 이를 “전통적인 편견”이라고 번역하여, 이러한 전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번역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남녀관계는 동지애적 관계로 표방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놓는 젠더균질화(gender-homogenization)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Goven 2002: 6-8; 조영주 2013 재인용). 동지는 함께 고난을 이기고 서로 성장을 도우며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북한이 공적으로 제시하는 동지로서의 남녀관계는 번역에도 투영되어 [예시 1]처럼 남녀 불평등한 시각을 서술한 원천텍스트에 번역자가 개입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어휘적 차원의 미세한 차이일 수 있으나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는 북한의 공적 내러티브가 투영된 번역이라 하겠다. 같은 결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성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번역자의 목소리가 [예시 2]에서 나타난다.

[예시 2]

[ST] Why, she had never had to do a thing for herself in all her life. There had always been someone to do things for her, to look after her, shelter and protect her and spoil her. It was incredible that she could be in such a fix. Not a friend, not a neighbor to help her. There had always been friends, neighbors, the competent hands of willing slaves. (1936: 350)

10) TT1의 경우 북한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옮겼음을 밝힌다.

[TT1] 물론 스칼렛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손으로 해야 한적은 일생에 단 한번도 없었다. 언제나 그 누구인가가 스칼렛 대신에 일을 해주었고 그녀를 돌봐주었으며 비호하고 보호해주었다. 이러한 지나친 사랑이 결국 그 여자에게 남을 부러먹으려는 나쁜 버릇을 붙여준 것이었다. 스칼렛은 자기가 이러한 곤경에 빠질수 있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자기를 도와줄 동무도 이웃도 없었다. 기왕에는 언제나 동무가 있었고 이웃이 있었으며 자진하여 복종하는 노예들의 유능한 일손이 있었다. (2001: 2-89)

[TT2] 그렇다. 그녀는 평생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무엇 하나 스스로 했던 적이 없었다. 그녀 대신에 일을 하고, 그녀를 보살펴주고, 그녀를 보호하고 안식처를 제공하고 응석을 받아 줄 사람이 항상 곁에 있었다. 그녀가 이런 곤경에 처하다니 믿어지지 않을 노릇이었다. 그녀를 도울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었다. 그녀와 이웃과, 기꺼이 응하는 노예들의 능숙한 손들이 항상 그녀를 곁에서 도와주었다. (2010: 중-570)

[TT3] 그녀는 여태까지 무슨 일이고 간에 혼자서 한 적이 없었다. 응석받이로 자랐다고도 할 수 있었다. 언제나 그녀를 위해서 누군가 일했고 돌봐주고 감싸 주고 또한 응석을 받아 주었다. 그런 자기가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 빠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와줄 친구도 이웃 사람도 없다. 그녀의 주위에는 언제나 친구도 있었고 이웃 사람도 있었다.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노예도 있었다. (2010: 1-451)

[예시 2]는 멜라니의 해산을 앞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스칼렛의 상황이다. 늘 누군가 챙겨줬기에 스칼렛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의 “spoil”을 TT2와 TT3은 “응석받이”로 번역하여 보살핌을 받고 자란 여성의 수동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TT1에서는 어휘를 문장단위로 확장하여 “이러한 지나친 사랑이 결국 그 여자에게 남을 부러먹으려는 나쁜 버릇을 붙여준 것이었다”로 번역함으로써 위계적인 힘을 행사하는 여성으로 리프레이밍한다. 이는 번역자의 가치판단이 개입하여 내러티브의 선택적 전용을 일으킨 예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객관화되고 공식화되어 조국을 위해 일하는 씩씩한 북한 여성을 그리는 북한 사회에서(전영선 2017: 133), 귀족 여성의 무능함을 계급 사회와 연결시켜 함께 비판함으로써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여기에 스칼렛을 돕는 노예의 손길을 표

현한 “willing slaves”를 “자진하여 복종하는 노예”로 번역하여 ‘복종’을 부각시킨 이유도 백인주인과 흑인노예의 주종관계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리프레이밍된 번역이라 하겠다.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남부 귀족 여성은 남녀의 동등한 사회 노동력을 강조하는 공적 내러티브 안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계급사회의 구조로 돌림으로써 이중의 왜곡된 프레이밍을 덧씌우는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내러티브는 [예시 3]에서처럼 사적 영역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러티브로 전환된다.

[예시 3]

[ST] “It was just that Yankee stepmother who squalled and said I was a wild barbarian and decent people weren’t safe around uncivilized Southerner.”

“Well, you can’t blame her. She’s a Yankee and ain’t got very good manners; and, after all, you did shoot him and he is her stepson.” (1936: 37)

[TT1] 《다만 그 계모인 북부태생의 여자만이 나를 야만으로 취급하면서 짐작은 사람은 미개한 남부사람 곁에 있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비명을 울리고 있던 말이야.》

《그렇게 그 여자만 비난할건 없어. 물론 그 녀자는 양키이고 태도도 좋지 않지. 하지만 넌 케이드를 쏘았고 케이드는 이붓아들일망정 어쨌든 그 녀자의 아들아닌가》 (1999: 31)

[TT2] 「내가 사나운 야만인이라면서, 짐작은 사람들은 미개한 남부인들하고 같이 살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등 법석을 떠 사람은 그 양키 계모라고.」 「그래도 그 여자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 여잔 양키여서, 예의범절을 잘 모르고,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넌 그 애한테 충질을 했고, 그 앤 이 여자의 이붓아들 아냐?」 (2010: 32)

[TT3] “나를 야만인 취급하면서 고상한 인간은 미개한 남부 사람 옆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등 하며 비명을 지르는 건.”

“그렇게 그 여자만 공격할 게 아냐. 물론 그 여자는 북부 태생이고 태도 역시 좋지 않아. 하지만 너는 케이드를 쏘았고, 케이드는 비록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여자의 아들아냐?” (2010: 27)

[예시 3]에서 TT1과 TT3은 케이드의 이붓아들이라는 원천텍스트의 표현에 ‘친아들은 아닐지라도 여자의 아들이지 않은가’하는 의미를 추가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명시화한다. 설령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부모자식의 관계이니 어머니인 케이드가 보살펴야 한다는 여성의 모성성, 어머니라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성성 강조는 종교 용어에서도 일반적인 기독교적 색채는 지우면서도 성모마리아는 “Holy Mary, Mother of God”(1936: 93)를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이시여”(1999: 93)처럼 직역하는 양상을 보인다. 거대한 가부장제로 상징되는 북한 체제는 혈연관계가 사회관계로 확장되면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결혼한 여성에게는 모두가 내 자식이라는 전제가 깔려서, 전시에 발생한 고아를 각 가정에서 입양하도록 선전하기도 했다(박영자 2017: 291).

국가는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성담론을 요구해왔다. 예컨대 전쟁과 복구시기에 여성들에게 혁명 정신을, 일상의 사회와 가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요구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국가가 여성들에게 보은과 섬김의 섹슈얼리티를 요구했듯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담론들이 재생산되었다. (권금상 2016: 27)

5.3. 모성의 담론으로 재배열되는 스칼렛과 멜라니

사회주의의 ‘대가장’이라는 통치 담론이 공적·사적 영역에 모두 편재되면서 북한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시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영선은 북한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태도에 대해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먼저 나서지 않고, 세대주를 앞에 세우는 것 자체를 아름다운 풍속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한다(2017: 22). 제시하는 [예시 4]도 이러한 남녀의 불평등한 시각을 드러낸다.

[예시 4]

[TT1] 《양키놈들이 타라에도 올가요?》

《글세...》하고 헨리시삼촌은 광범한 사람들이 전쟁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개인적인 문제밖에 생각못하는 여자의 웅졸한 마음씨에 화가 벌컥 치밀어서 무엇인가 격한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렸다. 그러나 스칼렛의 겁

에 질린 슬픈 얼굴을 보자 그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말했다. (2000: 53)

[TT2] 「적군이 타라까지 진격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 광범위한 문제들이 눈앞에 닥친 판에 개인적인 일만 생각하는 여자의 소견에 짜증이 난 헨리 백부가 입을 열었다. 그러더니 겁에 질리고 수심에 찬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2010: 상-521)

[TT3] “북군은 타라까지 갈까요?”

“뭐라구…….” 헨리 시백부는 너도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판국에 개인적인 일밖에 하지 않는 여자의 좁은 소견에 화가 났으나 그녀의 겁에 질린 슬픈 얼굴을 보자 곧 말을 부드럽게 하였다. (장왕록 2010: I-409)

[예시4]는 스칼렛이 자신의 집에 잠시 들러 전쟁 관련 소식을 전해주는 헨리 삼촌에게 자신의 집인 타라 농장이 북부 군인의 이동 경로에 포함되는 지 물어보는 장면이다. 가족을 염려하는 “feminine mind”는 TT1과 TT3에서 각각 “여자의 웅졸한 마음씨”, “여자의 좁은 소견”으로 번역되어, 여성성에 부정적인 어휘를 추가하는 선택적 전용 양상을 보인다. TT1은 스칼렛의 질문에 “irritate”로 표현된 헨리 삼촌의 불쾌한 감정을 “화가 벌컥 치밀어서 무엇인가 격한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렸다”라는 문장으로 확장시켜 ‘여성의 웅졸한 마음씨’에 대비시킨다. 이는 전쟁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남성의 감정 상태를 극대화시키면서 사적 영역에 놓여 있는 가족을 먼저 염려하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통치 담론이 번역자를 통해 개입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TT3의 경우 1992년 장왕록·장영희의 공역에서는 “여자의 소견”(1992: 상-473)으로 번역되었으나 2010년 장왕록 번역에서는 ‘좁은’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이는 1992년도에는 공역자인 여성번역자의 시각이 반영되었다가 2010년에는 다시 남성 번역자의 시각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 TT1과 TT3이 젠더와 관련해 더 유사한 번역 양상을 보이는 데는 장왕록의 최초 번역이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데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찾을 수 있겠다. 김혜경은 1970년대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가 강화된 시기로, 산업화(근대화)로 인해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화를 이루게 되면서 그 원인을 찾는다. 경제활동을 하던 미혼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 한 사람이 자녀 양육을 맡아야 하는 데 핵가족 구조에서는 대개 여성이 가사와 양육

을 전담하게 되면서 성 역할에 위계화가 일어났다고 본 것이다(2009: 203-204).

암스트롱은 「가족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종교」에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에서 탄생했지만 1960년대 중반 정권의 기반이 확고해지면서 “유교의 효성과 모성의 울림을 갖는” 가족 관계의 언어로 지배이데올로기를 표현한다고 보았다(2005: 169). 사회도덕적 규범으로 공존했던 유교주의는 인민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서 재생산되었고, 공적·사적 영역 모두 남성중심의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양상으로 흘렀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서문에서 리수림이 멜라니를 낳은 시대의 전형으로 치부한 반면에 2011년 북한의 문학잡지 『조선문학』에서는 멜라니의 유약함이 선량함과 인내로 재평가되면서 여성 인물을 리프레이밍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허영심 많고 승벽이 세며 원하는것은 기어이 손에 넣고야마는 완강한 기질을 스칼렛의 고유한 성격으로, 메라니에게서 선량성, 인내성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성격발전과정 속에서 심화발전시키고 개개의 인물들을 개성화하고 있다. (김정호 2011: 79-80)

월간 『조선문학』은 조선작가동맹 기관지로 북한문학을 대표하는 문예지이다(김성수 2015: 457). 조선작가동맹은 노동당 직속 기관의 집체창작을 담당하는 대표 단체로서, 『조선문학』은 통치담론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매체라 할 수 있다. 김정호는 “전선원호기금을 모을 때 각기 자신들의 결혼반지를 바치는 스칼렛과 메라니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며 인상적이다”(2011: 80)라고 밝힘으로써 두 여성 인물의 희생정신 또한 높이 평가한다. 특히 멜라니에 대한 평가가 낡은 시대의 무능함을 상징하는 전형에서 희생하는 모성애의 상징으로 리프레이밍 된 것은 사회주의 대가정과 선군사상정책 이후 강화되는 가부장제 체계로 보수적인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게 한다.

6. 결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두 여성 스칼렛과 멜라니를 통해 나타나는 젠더편향적인 번역은 번역자 개인이나 텍스트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정치사회적

통치담론과 맞닿아 있다. 정치적으로 주체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남녀평등이라는 공적내러티브를 형성하였지만, 그 기저에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유교주의를 고수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없는 전체주의 사회를 재편한 것이다. 사회주의의 대가정이라는 프레임은 여성에게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두 모성성을 내세운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이에 서문에서는 스칼렛을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회주의적 인물로 평가한 반면에 실제 텍스트 번역에서는 남성중심적인 젠더편향성에 의해 번역이 선택적 전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1년에 발행된 문학잡지에서는 서문에서 시대의 낯은 정신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멜라니를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여성상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어 가부장적 통치담론 하에 재편되는 여성상을 제시한다. 남성중심의 시각은 안정효와 장왕록의 번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부장제의 유교주의가 남북한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공통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텍스트에 나타난 젠더편향적 현상을 먼저 분석해내고 번역 현상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연구는 예상되는 틀 안에서 현상을 보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아래로부터의 연구는 텍스트 단위에서 확장시켜 감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어내기에 열린 시각으로 리프레이밍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다만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접근 가능한 자료 또한 국가 기관의 선택과 배제라는 프레임 과정을 한 차례 거쳤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아울러 단일텍스트 분석으로 문학체계를 지배하는 통치담론과 번역텍스트의 상호작용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석의 오류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번역된 미국문학텍스트 분석을 통해 통치담론과의 관계와 담론의 변화 양상을 읽어내려 시도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북한의 번역문학의 후속 연구들이 축적되어 북한의 문학번역담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이 (2018) 「학습만화 번역에서의 ‘선택적 전용(Selective appropriation)’ 현상 고찰 -사회분야 학습만화의 한중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3): 7-41.
- 김경선 (2017)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반동성을 비판한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무기여, 잘있거라>」, 『조선문학』 2017(12): 79-80.
- 김세현 (2018)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19(2): 39-63.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2): 65-102.
- 김영희 (2001) 「북한 영문학 서설」, 『안과 밖』 11: 9-16.
- 김예진 (2019) 「해방기 서울신문사의 Song of Ariran 번역과 중간과 민족주의의 발현」, 『번역학연구』 20(5): 7-34.
- 김용병, 장미진, 이창경, 임형재 (1999) 『북한의 국영 출판체제와 남북한 출판물 교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정호 (2011) 「미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조선문학』 2011(10): 78-80.
- 김중희 (2012)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문학의 방향성」, 김중희(편저), 『북한문학의 심층적 이해』, 서울: 국학자료원, 17-47.
- 김혜경 (2009) 「박정희 체제하 “핵가족” 담론의 변화과정과 이원구조 연구: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학회논문집)』 82(0): 169-212.
- 리기도 (1996)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
- 리봉섭 (1958.1.16.) 「외국 문학 번역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 문학 분과 확대 위원회 진행」, 『문학신문』 4면.
- 리철 (2017) 「작가 멜빌의 소설창작과 그 특징에 대하여」, 『조선문학』 2017(1): 79-80.
- 마승혜 (2015) 「한국 젠더 번역 사례 연구 -The Awakening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3): 23-52.
- 문학신문 (1957.6.27.) 「번역문학합평회」, 『문학신문』 3면.

- 문학신문 (1958.10.30.) 「로동 계급을 그린 번역 작품들 - 번역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회에서」, 『문학신문』 3면.
- 박희영 (1959.2.12.) 「더 잘 번역하고 더 많이 소개하자 - 외국 문학 분과 위원회 1958년도 총회 회의 진행」, 『문학신문』 3면.
- 박영자 (2017)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 성승은, 이혜승 (2019) 「외신 인용을 통한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영미연구』 47(1): 125-159.
- 안수찬 (2005.10.31.) 「남북‘팔만대장경’공동번역 첫 삽 떴다」, 『한겨레신문』, 2020년 4월 20일 검색.
- 암스트롱, 찰스 (2005) 「가족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종교」, 김지혜 역, 『대중독재 2』, 서울: 책세상, 168-169.
- 오오무라, 마스오 (2001)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운동주와 한국문학』, 서울: 미소출판, 350-365.
-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13(5): 143-173
- 이상빈, 이선우 (2018) 「인물형상화와 페미니즘 번역: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의 SF 소설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1): 147-176.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번역학연구』 17(5): 201-232.
- 임철성 (1997) 「북한의 호칭·지칭 연구」, 『국어국문학』 119: 79-107.
- 전영선 (2000) 「북한의 출판보도체제와 내용연구」, 『출판잡지연구』 8(1): 97-123.
- 전영선 (2002)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 서울: 영락.
- 전영선 (2017)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슈퍼우먼’ 혹은 ‘꽃’으로 호명되는 북한여성』, 서울: 경진.
- 주성하 (2010)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서울: 기파랑.
- KBS뉴스 (2018.11.15.) 「외교부, 정부 입장문 ‘강제징용’ → ‘Forced Labor’ 번역...불법성 강조」, 2020년 4월 20일 검색.
- 태혜숙 (2013)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에 대한 탐색」, 『젠더와 문화』 6(1): 83-107.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20년 4월 20일 검색.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 Ashwin, Sarah (2000) *Gender, State and Society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London: Routledge.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N.Y.: Routledge.
- Baker, Mona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2): 151-169.
- Baquedano-López, Patricia(2001[1991]) ‘Creating Social Identities through Doctrian Narratives’, *Applied Linguistics* 8(1): 27-45.
- Corbett, Greville G (1991) *Gender*, N.Y.: Cambridge UP.
- Enloe, Cynthia (1983) *Does Khaki Become You?-The Militarisation of Women’s Lives*, London: Pluto.
- Even-Zohar, Itamar (1972) ‘Translated Literature in the Polysystem’, In: L.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Y: Routledge, 192-197.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vard UP.
- Goven, Joanna (2002) ‘Gender and Modernism in a Stalinist Stat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9(1): 1-28.
- Hermans, Theo (1999) *Translation in Systems. Descriptive and System-Oriented.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Kim, Soon Mi (2019) ‘Distortion of a text through narrative framing in translation: A case study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 Korean translation of Angus Deaton’s *The Great Escap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0(5): 305-328.
- Lefevre, André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NY: Routledge.
- Morton, M (1980) “‘My Dear, I Don’t Give a Damn’: Scarlett O’Hara and the Great Depression”, *Frontiers: A Journal of Women Studies* 5(3): 52-56.
- Rubin, Gayle (1975) ‘The traffic in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in R. Reitner (ed.) *Toward an Anthropology of Women*, N.Y.: Monthly Review Press.

Sullivan, Tim (2012.10.24) ‘Reading *Gone with the Wind* in Pyongyang’, AP, 2013년 2월 25일 검색.

Summers, Caroline (2013) ‘What Remains: The Institutional Reframing of Authorship in Translation Peritexts’, in Valerie Pellatt(ed.), *Text, Extratext, Metatext and Paratext in Translation*, UK: Cambridge, 9-32.

Tre'vell, Anderson (2017.9.5) ‘Historical art or racist propaganda? How should Hollywood handle problematic classics like *Gone with the wind*?’, LA Times, 2020년 4월 20일 검색.

Watkins, Floyd (1970) ‘*Gone with the Wind* as Vulgar Literature’, *The Southern Literary Journal*, 2(2): 86-103.

<분석 텍스트>

Mitchell, Margaret (1936) *Gone With the Wind*, N.Y.: Macmillan.

박시환 역 (1999)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박시환 역 (200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2』,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박시환 역 (200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3』,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안정효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상』, 과주: 열린책들.

안정효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중』, 과주: 열린책들.

안정효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하』, 과주: 열린책들.

장왕록, 장영희 역 (1992)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상』, 서울: 교원문고.

장왕록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I』, 서울: 동서출판사.

장왕록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II』, 서울: 동서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the Reframing of Female Figures
through Political Discourse in North Korea**

Lee, Eun-j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gender reframing through political discourses in literary translation,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Gone With the Wind* in North Korea. Gender roles in North Korea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its governing discourses of Communism. Regarded as revolutionary comrades, North Korean women have the same social status as men in this socialist country, while they are forced to assume traditional women's roles defined by confucianism in domestic boundaries. This ideological gender frame is clearly shown in the paratexts and the translation of the novel: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Scarlett, was praised as a revolutionary character who resisted the deep-rooted feudalism in the South, while a supporting character Melanie was criticised as a passive and submissive white woman. However, the two figures were at the same time viewed through a maternal perspective a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pursued the Ideas of Great Family to control their social system. Two South Korean translations of *Gone with the Wind* are used in the analysis to investigate how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sociocultural backgrounds of these two countries are reflected in each translation. Reframing in literary translation can be viewed as a determiner of sociocultural context changes since a literary system is interconnected with other social systems.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reframing, gender, political discourse

▶ 주제어: 북한 번역문학, 리프레이밍, 젠더, 통치담론

이은정

숙명여대 박사 졸업생

vislee@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번역사, 번역평가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6일